

삶의 노래, 역설의 미학

좌혜경 (문학박사, 민속학)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나고 자란 땅을 사랑하고 알고 싶어한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알고 이해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나는 늘 만나는 사람들의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내 고향 제주를 사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민요, 전설, 신화, 민담 등의 구비 전승이 서민의 문화이고, 가까이 존재하고, 늘 접할 수 있어서 그것이 그렇게 귀한 것이라는 것을 진

작 알지 못했다. 일본인 高橋亨의 「濟州島の民謡」(제주도의 민요)라는 책을 서투른 일본어로 읽어 나가면서 어려운 삶을 이기기 위해 불렀던 신음과 같은 소리에서 제주 여성들이 지냈던 염세(厭世)를 배웠다. 전혀 다른 시대적, 세대차를 넘어서고 동감하여, 남 모르게 많이 울었다. 곧 소리는 고난의 삶에 대한 저항, 세력에 대한 거부, 세계에 대한 자아의 승리인데, 삶이 승화되어 노래



가 되어 있었다.

제주 지역에는 유희요에 비해 노동요가 많다.

일반적으로 민요는 노동과, 유희, 의례를 행할 때 불려지므로, 기능성(function)을 띤 현장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노동요는 노동을 하면서 힘들었을 때 그 고통을 잊기 위해, 또는 노동 현장에서 신명을 돌리기 위해 부른다. 노동은 남성 혹은 여성에 따라 구분이 되지만, 남녀 공동으로 작업하는 경우도 많았다. 대부분 노동요는 남녀 구분 없이 부르지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여성요이다. 여성요에는 여성들의 정서가 섬세하게 표출된다. 이러한 노래의 편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육지부처럼 논농사를 위한 노래는 찾기 힘들고 밭농사요가 주를 이루며, 특히 여성들이 바다에서 물질을 하거나 출가 물질을 가면서 노를 저으며 부른 '해녀노래'가 유명하다. 제주에는 서사민요가 없고 대부분이 서정요인데, 그것은 서사 무가(巫歌)가 많아 서사 장르에 대한 충족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조선조 목사의 파견과 왜구의 침략에 의한 지배와 저항에 관한 노래들이 있다. 그래서 관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지리적으로 섬을 변방이라고



인식하고, 현실을 부정하면서도 역설적으로 서울을 지향하며 또한 양반을 동경하는데, 이는 섬사람들이 지녔던 중앙에 대한 역사인식을 반영한다. 그래서 노래의 이미지가 어둡다. 한편 성음이나 조건의 민요는 다른 지역과 달리 창민요와 같은 관변(官邊)민요가 잘 발달되어있다.

노래 속에서는 섬의 한계(限界)성을 부정하고 늘 다른 세계를 동경하였으며, 물 넘고 산 넘은 공간을 찾아서 진출을 꾀하는 진취적인 기상과, 반면 이를 넘어서지 못함으로 나타난 한(恨)스러움이 나타난다. 그러나 한스러움은 한(恨) 자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노동으로 극복한다.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의 모습, 끝없는 생산을 위한 몸의 움직임, 몸이 환경에 대한 적응을 통해 얻어낸 가장 값진 땀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제주의 대표적인 노래 세편을 꼽으라면 오돌또기, 해녀노래, 맷돌노래를 들 수 있다.



1. 오돌또기 - 제주인의 사랑과 낭만



오돌또기는 제주의 대표적인 노래로, 유흥요로 불려져 왔다.

오돌또기의 명칭은 의문이나 노래에는 제주인의 사랑과 낭만적 정서가 물씬 배어난다. 섬 전역에 전개되는 제주의 풍광과 그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사랑이야기가 한층 밝고 명랑한 이미지로 다가온다.

제주 민요가 노동요이며 화산회토의 칙칙한 흙과 갈옷의 이미지와는 대조적으로 이 노래는 밝은 이미지의 노래다. 일반적으로 오돌또기는 굿거리 장단에 장구나 허벅을 반주로 사용하여 노래하고 있다.

한편, 조선조에 불려졌던 판소리 '흥부가'와 '가루지기 타령'에도 오돌또기 첫머리와 비슷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조선조 때에는 전국에 분포되어 불려졌던 노래가 제주 섬

에 남아 그 원형을 간직하고 제주화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언제부터인지 오돌또기에는 전설이 붙기 시작했다. 풍랑을 만나 안남국에 정착한 제주 어부 김복수가 거기서 만난 오끼나와의 여자인 임춘향과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노래라는 것이다. 아름답고 세련된 선율에 화려한 제주도의 풍광을 담은 오돌또기의 정체는 의문을 남기면서, 제주 섬을 상징하는 노래로 깊이 애창될 것이다.

- 둥그데 당실 둥그데 당실
여도 당실 연자 버리고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 오돌또기 저기 춘향 나온다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 한라산 중허리¹⁾에 시로미 든송 만송²⁾
서귀포 해녀가 바다에 든송 만송//



1) 중턱에
2) 시로미 나무의 열매가 익은 듯 만 듯

2. 해녀노래-제주 여성의 삶의 역동성

해녀노래는 바다에서 물질 작업을 행하던 '해녀'들에 의해 불려진 어업노동요이다. 노래는 배의 노를 저으면서, 혹은 테왁을 짚고 바다로 물질 작업을 나가면서, 물질 작업이 다 끝나서 서로 흥겹게 놀 때도 불렀다. 특히 일정 지역의 섬에 배타고 뱃물질을 갈 때 혹은 경상, 전라도 등 육지 출가 물질을 가서 노 저으면서 불렀던 '노 짓는 소리'가 해녀 노래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다. 해녀 노래의 명칭을 <네짓는 소리> <좁네소리>, <좁수질소리>, <이어싸소리>, <이어도사나>라 부르기도 한다.

제주의 해녀는 일반적으로 바다를 끼고 있는 인근주변에 분포되고 있으며 밭에 나가 농사를 짓고, 물찌 때가 되면 바다에서 나잠으로 전복이나 해삼, 소라, 톳, 천초 등을 채취하여 생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

제주에서는 그녀들을 부르는 명칭을 좁수, 좁녀, 좁네, 잠수(潛嫂)라고도 한다. 보통 아침 10시 경에 물질 작업을 시작해서 오후 3~4시가 될 때까지

지, 하루 5~6시간 정도 하는데, 물 속에서 치러지는 일이어서 힘들다. 1분30초 정도 숨을 참고, 7~20미터를 내려가서 해산물을 따는 일은 목숨을 건 일이다. 몸으로 익힌 경험지식의 잘못 판단으로 '물숨'을 먹어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래서 물질작업을 '혼백상자를 등에 지고 가는 일', 혹은 '저승길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이라고 여긴다.

제주 해녀들은 도내 뿐만 아니라 1880년경부터는 도외에 가셔도 물질을 했는데 이를 '출가물질', '바깥물질'이라고 했다.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등 한반도 전지역 바다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갔으며, 국외로는 일본을 비롯하여 중국 청도 대련, 그리고 블라디보스톡까지 간 해녀들의 활동은 눈부셨다.

가창방법은 주로 배의 방향키를 조정하는 '하네'를 짓는 선장이 선소리를 하기도 하지만 주로 배 옆에 위치한 '젓거리노'를 짓는 한사람이 선소리를 하고 나머지는 훗소리를 받는다. 해녀노래는 그녀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 노를 짓고 물질을 떠나는 장면, 노를 짓는 행위와 노동 현장, 해





너들 삶의 여정 전반을 여실히 드러내 준다.

해녀들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극복하는 힘이 생기는데, 노동할 때 생기는 에너지, 특히 노 젓는 기백으로 극복하려고 한다. 그래서 노래는 삶의 역동성과 힘찬 기상을 지닌다. 해녀 노래는 발동선이 생긴 1970년대 이후 노동 현장이 바뀜에 따라 노래 현장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제주 전역에 남아 불려지고 있다.

이어싸나 이어싸나
 맛맛한 물줄에³⁾ 해풍만 치고요
 허적소리⁴⁾ 나는것은

연락선만 소리로구나 처라
 처라베겨 혼목을것영⁵⁾남을준덜
 허리지덕 배지덕말라
 이어싸나 요벤드레⁶⁾
 끊어지면 부산항구
 아사이노기⁷⁾없일소나
 요내착이⁸⁾ 부러지면
 대마도산천 곶은 나무 없을소나
 무를무를⁹⁾ 신살르멍¹⁰⁾ 젓어보라
 기신내멍¹¹⁾ 발버둥치멍 동동치멍¹²⁾

- 하략 -

- 3) 바다에 일어나는 물줄기
- 4) 뱃고동소리
- 5) 한 바탕을 저어서
- 6) 낚싯거루의 노를 저을 수 있도록 배 멩에와 노손을 묶어놓은 밧줄
- 7) 삼으로 끈 노끈
- 8) 이 노의 상책
- 9) 마루인데, 길게 늘어져 다가오는 파도의 등성이
- 10) 신명을 내면서
- 11) 힘을 내어
- 12) 치올려 차며

3. 맷돌노래-시리도록 아름다운 서정의 극치

맷돌노래는 '그레그는 소리' 라고도 하며 보리나 조 등의 곡물을 빻기 위하여 '정그레' 라고 하는 맷돌을 돌리면서 부르는 제분 노동요다.

보통 여성들은 9살 적부터 맷돌작업을 했다. 밤에는 친정어머니와 같이 했고, 낮에는 혼자서 했다. 주로 물에 불린 보리를 물방아에서 한번 꺾질을 벗긴 후 다시 쪼개어서 밥을 해 먹어야 했다. 그리고 제사 때와 같은 가내 행사에서는 메밀은 맷돌에서 꺾질을 벗기고, 갈아서 전 혹은 빙떡, 묵을 해서 쓰기도 하고 수제비도 만들어 먹었다.

맷돌을 돌리면서 부르는 노래는 일반적으로 밤에 이루어진다. 한적한 시간, 장시간 동안, 개인 혹은 한 두 사람에게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기에 알맞다.

맷돌노래는 한 곡조에다가 셀 수 없는 편수가 동원된다. 자신의 신세한탄, 시집살이의 고통, 사랑하던 사람과의 이별 혹은 사별, 삶의 철리(哲理) 등 다양한 제재를 노래하게 된다.

이여이여 이여동허라
 이엿말랑 말양근가라
 말양가면 놀이나웃나
 이여후민 나눈물난다
 눈물이지는 한강수도헛다
 놀이운덜 나무사울리
 이엿말랑 말양근가라

노래 속에서 이미 떠나 버린 사람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고통이었고, 늘 찾던 낙원의 땅은 바로 고난의 현실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눈물조차 보이지 않겠다는, 슬픔을 슬픔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역설적 의지가 있었다

시대의 변화는 너무도 빠르고 세대간의 격차는 심하다. 과거의 노래 소리는 이제는 완전히 끊겼고, 그 심정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 마치 암석에 새겨진 화석처럼 굳어져 가고 있다. 힘든 삶을 아프다 하지 않고 묵묵히 살아갔던 제주 사람들의 자강(自彊), 노래 속에 표현된 역설적 아름다움과 그 철학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

